

김황식 전 총리 “지역 균형발전으로 더 큰 전남 기대”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 두 번째 주자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 두 번째 주자로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사진)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응원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과도한 경쟁,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압축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더 큰 전남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이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힘써주길 바라고,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1948년 장성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냈다. 현재 삼성 호암재단 이사장, 2020년부터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전남도는 답례품으로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여수 갯김치,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체험·관광상품 등을 폭넓게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강대, 재학생 외국어 실력 향상 ‘어학 장학금’ 수여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최근 재학생들의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강대 국제교류원(원장 허숙)은 최근 분관 1층 장원홀에서 ‘어학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어학 능력을 인정받은 간호학과 유현서(1년)·김서운(3년)·이예은·문희정(이상 4년)·방사선과 장인제(1년) 등 5명이 어학 장학생으로 상을 받았다. 한편 동강대는 매년 어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2022년 총 27명이 혜택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 여양중, 사제동행 문집 발간

여수 여양중학교(교장 김갑일)가 지난 일 년간 실시한 사제동행독서와 인문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소크라테스의 후에! 낯선 길, 그 길에 게 말을 걸다’라는 제목으로 문집을 발행했다. ‘소크라테스의 후에! 인문 동아리는 독서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쳤으며 그 결과물을 이번 문집에 담았다. 동아리 학생들은 성장스토리 작성하기, 독서 후 감상문 쓰기 및 명문장 발췌하기, 꼬마 시인되어자작 시 써보기, 문화체험 활동 후 현상 들여다보기, 이색 교육활동을 총평하기 등 교육활동을 총총하게 담고 있어 한해의 동아리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안재영 (동아리 회장, 3학년)학생은 “글을 쓰는 과정이 많아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활동이 조금씩 익숙해졌다”며 “1년 동안 애정으로 보살펴준 지도 선생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여수 여양중 학생들이 문집을 발간하기 위해 글을 쓰거나 편집하는 장면. <여수 여양중 제공>

김광호 지도 교사(국어)는 “인문 동아리 활동을 10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데 수업을 병행하며 다양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활동을 지도했다”며 “책 읽기부터 글쓰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불평 없이 잘 따라준 제자들에게 이 문집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담양소방서, 다문화가정에

소화전 외국어 설명 스티커 홍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관내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을 고려한 옥내소화전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사용설명 스티커를 홍보했다. <담양소방서 제공>

순천하얀어린이집, 원아들이 모은 ‘사랑의 저금통’ 기부



순천하얀어린이집은 최근 원아들이 칭찬을 받을 때 마다 모은 동전인 ‘사랑의 저금통’을 전남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전남 사랑의 열매 제공>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15 꾸러기 식사교실 45 시간탐험대 다이너맨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금혼령(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법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영상앨범 신(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	00 브레드와 워크의 세계여행 15 좀비덤 3 30 반짝반짝 달남이 2 45 프라온 원정대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문계공향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엘리가 간다(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알상달상 캐치!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7학년 주시회사(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풍의 신부	05 생방송 연속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20 7학년 주시회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세컨 하우스		
9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다큐 M	00 이상한 나라의 지옥병정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00 심야괴담회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KBS 뉴스라인	00 연중 플러스	20 금토드라마 폭두의 계절 프리미어 40 문화콘서트 난장	
12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50 광주MBC 보드 스페셜	00 나이트라인 30 신년특집 로컬콘텐츠의 미래 컨퍼런스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번개맨과 안전맨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EBS 교육진단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댕 유치원	13:50 명의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14:45 한국의 들레길	<아름다운 시절 내달 -도시별곡 산촌별곡>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반려동물 기행 4부 아주 특별한 배낭여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꾸러기 천사들	21:50 극한직업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2:45 공상가들
09:20 시뮬	16:15 페퍼 피그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5 베이비빙의 희한한 모험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6:40 당동댕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6일(음 1월 5일 甲申)

<p>36년생 똑 같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48년생 여유를 갖고 신중히 처리하라. 60년생 걸으면 나타난 것만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72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 받은 셈이다. 84년생 페도남마했을 때 참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96년생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을 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1, 75</p>	<p>42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54년생 취약한 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야만 한다. 66년생 기묘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변이 예상된다. 78년생 무관심하다면 감퇴할 수밖에 없다. 90년생 서설은 생략하고 한시바빠 본론으로 들어가야 좋다. 02년생 유동적인 변수까지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05, 91</p>
<p>37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49년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면의 가치를 읽을 줄 알아라. 61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73년생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85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97년생 지금의 판도 로써는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4, 88</p>	<p>43년생 권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5년생 기본적인 개념 파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67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르게 된다. 79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91년생 절충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두고 후회할 것이다. 03년생 여태까지 내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8, 83</p>
<p>38년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류해야만 한다. 50년생 여무지게 마무리하고 나아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62년생 급한 것부터 조치되었을 때 실리를 도모할 수 있다. 74년생 개별적인 교감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86년생 수고로운 일이 드러나지만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처지이다. 98년생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0, 90</p>	<p>44년생 평생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발생하리라. 56년생 변경하지 말고 현행대로 실행 하는 것이 유익하다. 68년생 흐르는 물도 떠 주면 공덕이 되는 법이다. 80년생 기본적인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92년생 빠른수속 효과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04년생 의욕적으로 실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96</p>
<p>39년생 발전 동력의 촉매제가 생긴다. 51년생 불변하다면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63년생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상천외한 묘안이 보인다. 75년생 치열하고 집요하게 매달려야 해결될 문제다. 87년생 진행하기 보다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99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6, 97</p>	<p>45년생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마도 끼어들지 못하리라. 57년생 불변하다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69년생 고관들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 81년생 성취의 교두보를 설정하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93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리라. 05년생 순간의 현상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12, 58</p>
<p>40년생 최근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취하게 된다. 64년생 지리멸렬했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다. 76년생 희비가 쌍곡선을 그리며 질주하는 위상이니 참으로 가관이다. 88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00년생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33, 57</p>	<p>34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46년생 기준에 입각하여 착실히 임한다면 성취하리라. 58년생 반드시 실속 있는 관계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니라. 70년생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82년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94년생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6, 87</p>
<p>41년생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느니라. 53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65년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닥이 잡히리라. 77년생 힘든 만큼 배려한 효과가 확실하 나타날 것이다. 89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본원이다. 01년생 확실하 이득이 될 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0, 53</p>	<p>35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47년생 대화의 부족은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59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것이 태반이라서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71년생 통제할 줄 알아야 완성될 것이다. 83년생 가히 납득이 갈 것이다. 95년생 변수로 인해 서둘러야겠다. 행운의 숫자 : 02, 81</p>